

## “준비해 청용! 네가 공격 핵이야”

이청용-박주영 투톱 활용에 박지성 2선 공격 구상  
 2기 조광래호 7일 이란전 대비 오늘부터 소집 훈련

‘2기 조광래호’가 중동축구의 강호 이란과 평가전(7일 오후 8시·서울월드컵경기장)을 앞두고 3일부터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소집훈련을 시작한다. 이번 훈련의 키워드는 ‘이청용 활용법’과 ‘세트플레이 완성도’다.

이란은 조 감독 취임 이후 두 번째 상대. 2011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다투게 될 중동의 강호 이란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5위로 중동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에 올라 있다.

대표팀은 우선 해외파 12명과 이번 주말 경기가 없는 윤빛가람 및 김주영(이상 경남)을 먼저 소집해 훈련을 시작하고, 주말 K-리그가 끝나는 5일부터 전체 선수단이 모여 담금질에 나선다.

◇‘이청용 활용법’은? = 조광래 감독은 이란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청용(볼턴)의 다양한 활용 방법에 기대를 걸고 나섰다. 조 감독의

복안은 이청용이 자신의 공격적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전방 공격수 박주영(AS모나코)의 투톱 파트너처럼 활용하면서 오른쪽 공격에 힘을 실어보겠다는 것이다.

조 감독은 이청용이 박주영과 투톱 형태로 자리를 옮기면 ‘캡틴’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왼쪽 측면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위치를 이동해 2선 공격에 가담하는 유기적인 움직임을 구상하고 있다.

이청용 역시 “조 감독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어서 빨리 팀에 적응해야 한다. 나에게 원하는 게 큰 만큼 더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세트플레이가 관건 = 조광래 감독은 나이지리아와 평가전에서 전반 26분 피터 오렘윙기에게 헤딩 동점골을 내준 상황을 못내 아쉬워했다. 프리킥 상황에서 불이 페널티지역으로 투입됐지만 수비수가 모두 오렘윙기를 놓쳐 자유로운 상태에서 헤딩

골을 내주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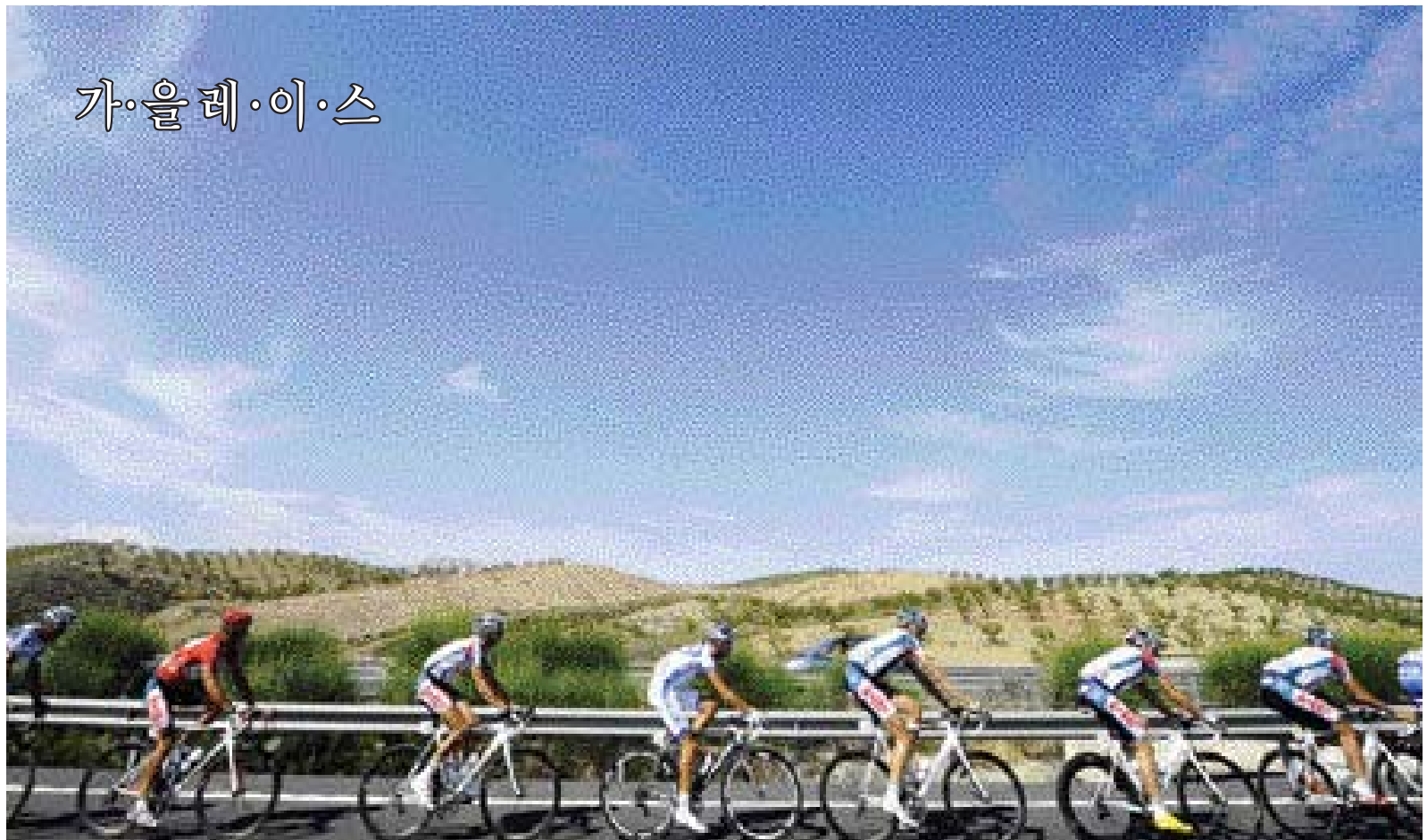
조 감독은 “대표팀 소집훈련 기간이 적어 세트플레이 상황에서 대처법을 제대로 훈련하지 못했다”며 “당시 실점은 선수를 놓친 수비수의 실수였다. 이란전에서는 세트플레이에 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밝혔다.

해외파 선수만으로도 베스트 11을 만들 수 있는 만큼 시간을 충분히 투입해 ‘조광래식 세트플레이’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X-파일’에 뭘 담을까 = 조광래 감독은 조 감독은 선수들에게 ‘조광래식 축구 전술’이 담긴 A4 12장 분량의 프린트물과 함께 나이지리아와 남아공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및 일본과 최종 평가전 내용을 하이라이트로 만든 영상물을 나눠줬다. 소위 ‘X-파일’로 불린 자료집은 이번 이란과 평가전을 앞둔 선수들에게 또 한 번 배포될 예정이다. 새로 합류한 선수들에게 대표팀 전술을 설명해줌으로써 ‘조광래식 축구’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1기 대표팀에 합류했던 선수들도 ‘전술 복습’의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게 대표팀 코칭스태프의 생각이다.



〈박주영〉 〈박지성〉 〈이청용〉



2일(한국 시간) 스페인에서 열린 ‘라 부엘타(La Vuelta)’ 사이클대회 5구간(과딕스-로르카) 경기에서 선수들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 가·을·테·이·스

### 박지성·이청용 EPL ‘25인 로스터’ 포함

20개 구단 2010~2011 시즌 참가 1군선수 등록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태극전사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과 이청용(22·볼턴)이 올 시즌 25인 로스터(roster·출전 선수 명단)에 무난히 포함됐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2일 오전 1시(한국시간)까지 20개 구단으로부터 2010~2011시즌에 참가할 25인 로스터를 제출받아 발표했는데 맨유에서 6번째 시즌을 맞은 박지성과 2년차 프리미어리그 이청용도 당연히 이름을 올렸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이번 시즌

도입한 ‘25인 로스터 제도’는 각 클럽이 제출한 25명의 1군 선수로만 내년 1월까지 경기를 치르게 한 것이다.

잉글랜드 대표팀이 월드컵이나 유럽선수권대회 등 국가대항전에서 부진하자 자국 출신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각 팀은 25명의 선수 가운데 최소 8명은 잉글랜드나 웨일스 클럽에서 3년 이상 활동한 21세 이하 선수로 구성해야 한다. 부상 선수가 생기면 21세 이하 선수만 교체할 수 있다. 공격수 웨인 루니나 디미타르

베르바토프, 수비수 네마냐 비디치, 미드필더 폴 스콜스 같은 주축 선수들이 모두 명단에 포함되는 등 맨유의 로스터는 예상을 크게 벗어났다. 박지성의 포지션 경쟁자인 라이언 기스와 루이스 나니, 안토니오 발렌시아도 올 시즌 맨유의 우승 도전에 힘을 보탠다.

볼턴도 이청용을 비롯해 미드필더 케빈 데이비스와 골키퍼 유시야스켈라렌, 올 시즌 영입한 측면 미드필더 마르틴 페트로프 등이 명단에 들어가는 등 현재 리그를 치르는 스쿼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연합뉴스

### 전국체전, 광주 1231명·전남 1632명 출전

내달 6~12일 경남일대에서 열려

다음달 6일 진주 등 경남 일원에서 개막하는 제 91회 전국체육대회에 16개 시·도에서 총 2만 3천 876명이 참가한다. 선수 1만 7773명과 임원 6103명이 참가 신청했으며, 경기도가 1978명으로 가장 많은 선수단을 파견한다. 경남(1824명)과 서울(1770명)이 그 뒤를 이었다.

광주에서는 1231명(선수 908명, 임원 323명)의 선수단이 지역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다. 한국 육상

의 자존심 박태경·김덕현(이상 광주시청)과 수영 기대주 쌍둥이 김달은·고은(이상 HI 코리아)도 광주 대표로 나선다.

전남은 이번 체전에 ‘금빛 원크’ 배드민턴 이용대(삼성전기), 수영 국가대표 정다래(전남수영연맹) 등 1632명(선수 1208명, 임원 424명)의 선수단을 출전시켜 순위 경쟁을 벌인다.

참가 인원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2만 4541명보다 665명이 줄어들어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대한체육회(KOC)는 “전국체전의 내실화를 위해 올해부터 세부종목에 참가인원 제한과 기준기록 등을 적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전국체전은 10월6일부터 12일까지 경남 일원에서 진행되며 41개 정식종목과 3개 시범종목에서 메달싸움이 펼쳐진다.

KOC는 대회에 앞서 8일 진주실내체육관에서 시·도 대표자회의를 열고 종목별 대진 추첨을 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축구 선수, 남자보다 여자 부상위험 높다”

무릎 근육 배열 달라 십자인대 다치기 쉬워

여자 축구선수가 남자 선수보다 무릎부상 가능성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AFP통신은 2일 미국 미주리주 워싱턴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인용, “성별에 따라 무릎 근육 배열 상태와 활성화 정도가 다르며 이 때문에 여성이 무릎 십자인대 등을 다치기가 더 쉽다”고 보도했다.

이 연구를 주도한 워싱턴대 의

대 정형외과의 로버트 브로피 박사와 연구팀은 3차원 입체 동작분석과 근전도검사 등을 이용해 남자 축구선수 13명과 여자 선수 12명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남자는 공을 할 때 무릎의 부담을 덜어 주는 엉덩이 굴근과 외항근이 여자보다 잘 발달해 있고 허벅지 안쪽 근육이나 골반 근육의 활동성도 여자의 2배 이상이라는 것이다.

대학과 프로 축구 선수로도 활동했던 브로피 박사는 “둔부 외항근이 잘 발달해 있으면 무릎 십자인대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여성은 이 근육의 움직임이 남자보다 떨어져 무릎에 더 부담이 가고 부상 위험도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성별에 따른 부상 가능성 차이를 이해하고 여자 선수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무인텔

테마룸

무인텔

1개당 1투차  
팀동수여행!

국립자연휴양림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남산로 100

문의: 02) 523-7789